

살풀이춤 연구 재고: 한영숙류 살풀이춤을 중심으로

한동엽*·조남규 상명대학교

이 연구는 향후 살풀이춤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살풀이춤을 해석하기 위해 논의되어온 자연 합일적 동양 사상과 남성적·여성적 미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한다. 살풀이춤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춤으로 손꼽히며 유파별로 활발하게 전승되는 한편 전통문화연구의 대상으로서 주목받아왔다. 선행연구가 누적되면서 합일을 지향하는 동양철학의 본질을 통해 살풀이춤을 이해하고자 한 시도는 고유의 사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였다. 하지만 합일로의 귀결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개별 주체의 지향과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철학적 사유를 춤의 언어로 표출한다는 살풀이춤의 성격이 온전히 포착되지 못했다. 한편 살풀이춤의 미감을 해석하기 위해 '남성적·여성적'이라는 용어가 재정의 없이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또한 문제적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합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리와 대립의 과정에 주목했다. 살을 표상하는 명주 수건에 대한 부정과 수용, 맺음과 풀림을 구현하는 살풀이춤에는 분리와 대립의 과정을 거치며 객체와의 관계 속에서 객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주체 자신의 자아상이 재확립되어가는 능동적인 면이 녹아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영숙의 살풀이춤이 철학적 성찰의 과정 자체를 춤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구도자적인 송고미를 자아낸다고 보았다. 한편 기존에 논의되어온 살풀이춤의 미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긴장과 이완의 격차라는 관점에서 살폈다. 살풀이춤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살풀이춤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상(像)을 제시하는 것과 오늘날의 가치를 통해 살풀이춤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주요어 : 살풀이춤, 전통, 미감, 긴장, 이완, 젠더

I. 서론

전통 문화의 보존과 다음 세대로의 전승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온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교류가 활발한 오늘날, 보편과 특수 공존을 위한 전통의 발전적 계승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한국의 정서와 세계관이 녹아있는 전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통춤 또한 명인(名人)들의 헌신적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극도로 정형화된 서양의 고전발레와는 달리 비정형성 자체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한국 전통춤은 보존과 전승 과정에서 보다 입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통춤의 발전적 계승 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존과 전승을 위한 명인들의 시도 및 그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은 연구사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통춤 전승에 대한 조력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대표적 민속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살풀이춤은 중부권의 경기류와 목포, 광주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승된 호남류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하수연, 2003). 경기류는 한성준에서 한영숙으로 이어지면서 한영숙류로 전승되었으며 호남류는 이매방을 중심으로 한 교방 살풀이춤이 또 다른 축을 형성했다. 하지만 두 유파

* 교신저자 : hdyj2@naver.com

는 표현과 미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섬세한 동작 속에서 유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매방류 살풀이춤과는 달리 한영숙류는 담백한 춤사위를 통해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국승희, 강지연, 2006). 남성 연행자인 이매방의 춤이 여성적이며 여성 연행자인 한영숙의 것은 남성적 미감을 지녔다는 것이다. 두 살풀이춤에 대한 미감의 정의에서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명명은 학계에서도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뿐더러 엄밀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해당 어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살풀이춤의 미감을 명명하는 기준에 대한 재정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살풀이춤의 미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살풀이춤의 미감을 형성하는 기저의 철학적 기반과 표현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 선행연구가 누적되면서 살풀이춤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었다. 합일을 지향하는 동양철학의 성격을 살풀이춤에서 확인함으로써 고유한 사유를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밝혔으며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개별 유파별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살풀이춤의 미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Sex) 개념을 엄밀한 재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은 후학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성차를 언급하더라도 그러한 성차를 형성하게 된 사회적 요인과 상호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성차에 대한 결정론과 일반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살풀이춤에 내재된 인간과 자연의 합일의 의미를 재고하는 한편 살풀이춤의 미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합일의 양상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동양철학을 통해 해석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합일 이전에 존재하는 분리와 대립의 의미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살풀이춤의 핵심으로 논의되어온 합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후 한영숙류 살풀이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철학적 기반을 확인하는 한편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남성적, 여성적 미감이라는 용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개념의 대안으로 긴장과 이완의 낙차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살풀이춤의 미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살풀이춤은 여성과 남성 연행자 모두 연행 가능한 전통춤이다. 스승에서 제자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으로부터 수학하고 전수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살풀이춤을 젠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미감 연구는 물론 향후 살풀이춤의 전승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와 변이의 풍부한 양상을 연구하는데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살(煞)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서의 살풀이춤

한영숙은 한국 전통춤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부 한성준의 엄격한 지도하에 춤사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신을 이어받았다. 일생 동안 전통춤의 연행과 전승에 투신하며 열정을 쏟은 그의 예술혼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한영숙의 제자들은 그 헌신적 열정 속에서 혼연일체(渾然一體)의 춤을 구사한 업적을 회상한다. 이 장에서는 한영숙의 삶과 그의 살풀이춤에 내재된 철학적인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들이 살풀이춤에서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동양의 사유를 확인한 바 있다. 본고는 그러한 관점을 이으면서도 합일을 위한 전제 조건인 근원적 분리와 모순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살풀이춤 고유의 미감을 연구하는 기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영숙의 생애 및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전승현황

한영숙은 18세에 부민관 무대에서 선보인 춤으로 일찌감치 명무(名舞)의 반열에 올랐으며 평생 전통춤의 연행과 후학양성에 헌신해 춤의 대모(大母)로 불린다.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1971년 제 40호 학무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태평무와 살풀이는 한영숙의 독보적인 예술세계가 이룩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1920년 부친인 한희종과 그의 후처 사이에서 태어난 한영숙은 순탄하지 못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11세에 상경해 예술적 환경 속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근대 한국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조부 한성준과의 조우는 한영숙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한성준은 예인으로서 전국을 유랑하며 체득한 각 지역 민속춤의 색채와 정재, 권변춤을 종합해 전통춤을 무대예술로 격상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성기숙, 2004). 13세부터 한성준으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은 한영숙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승이 아닌 반복적 연습을 통한 체득의 과정 속에서 춤사위에 녹아있는 인생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었다. 1937년 10월 부민관에서 첫 무용발표회를 통해 학춤, 승무, 살풀이춤을 선보임으로써 그는 18세의 나이로 명무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한성준의 사망 이후 상실의 아픔을 딛고 전통무용에 헌신하며 예인이자 교육자, 연구가로서 활약했다.

한성준이 설립한 '조선무용연구회'를 인수한 그는 '한영숙 고전무용 연구소'로 개칭하고 전통춤에 대한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으며 활발한 전승을 통해 후학양성에도 힘썼다. 한국민속예술학원과 서울예술고등학교, 서라벌예술대학 등을 많은 학교를 거쳤으며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 강단에서 무용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만나 전통춤을 전승했다. 한편 1988년 서울 올림픽 폐막식에서 살풀이 공연을 하여 전 세계에 한국 전통춤이 지닌 고유의 미감과 정서를 선보였다. 1989년 타계하기 까지 삶의 질곡 속에서도 전통춤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혼연일체의 춤을 완성해 오늘까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한영숙은 평생 후학양성에 힘써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영숙류를 보전하며 맥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제자들이 한영숙류 보존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정재만, 이애주, 이은주는 스승의 춤을 지속적으로 가꾸어가고 있다. 정재만은 17세에 한영숙의 첫 제자로서 조우해 1971년 무형문화재 제 1기 전수생으로 승무와 학춤을 전수받았다. 스승의 호인 벽사(碧史)를 이어받아 활동하며 (사)벽사춤아카데미를 이끌어 교육과 전승, 보존에 헌신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1969년)를 한영숙으로부터 전수받은 이애주와 정재만은 각각 1997년과 2000년에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한영숙류 살풀이춤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정재만은 한영숙 살풀이춤 원류 보존에 힘쓰는 한편 전통 살풀이춤의 기법에 태평무의 발 디딤새를 응용하여 자신의 춤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 허튼 살풀이춤을 창조했다(권순주, 2008). 정재만의 허튼 살풀이춤은 현재까지 전승 보전되고 있는 각 유파별 살풀이춤들과는 달리 빠른 템포와 신명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고조가 증폭된 춤으로 한국의 한의 개념만이 아닌 신명의 감정을 외향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앞의 글).

이은주는 1974년 한영숙 문하에 입문해 1989년 그가 타계하기까지 스승의 떠나는 길을 지킨 제자이다. 그는 한영숙의 타계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한영숙류 살풀이춤 보유자로서 2015년 1월 서울시 무형문화재 46호로 지정되었다. 이은주의 살풀이춤은 한영숙의 살풀이춤 원형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스승의 살풀이춤이 지닌 담백하고도 엄격한 미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다.

2. 모순적 대립물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서의 살풀이춤

미(美)를 지고의 선(善)으로 보는 관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시공간의 차이에 따라 미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변화했을 뿐이다. 미를 추구하는 것에 인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녹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 전통춤이 지닌 미감을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술에 깃든 보편성과 특수성은 층위를 달리하며 복잡다단하게 미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선학들의 노력으로 살풀이춤에 내재된 동양철학적 사유, 한국전통문화로서의 정체성 등 특수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누적된 만큼 이제는 예술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풀이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다층적 구조가 한국 전통춤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 전통춤은 정형화되어 모든 동작에 엄격한 기준이 부여되는 고전발레와는 달리 개별 연행자의 몸매에 맞게 춤이 재구성되기 때문에(김연정, 2016) 동일한 춤으로 분류되더라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층위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구성되면서 독특한 미감을 자아낸다. 한영숙의 살풀이춤 또한 살풀이춤이 지닌 공통의 미감에 한영숙 자신의 신체에 맞게 구성되고 해석된 춤사위와 그의 삶에 대한 사유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전통춤은 그 안에 형식에 대한 상대적 자유로움, 그로 인해 빚어지는 즉흥성과 신명, 자연과 맞닿아있는 드러냄과 감춤의 조화 등이 특징적으로 꼽힌다(강지연, 2005). 살풀이춤은 거기서 더 나아가 개인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정신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자유로운 춤으로 연행자의 독자적이고 즉흥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황경숙, 2005). 그렇기 때문에 한영숙류 살풀이춤이 지닌 미감의 보편성과 고유함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한국 전통춤은 물론 그에 깃든 고유한 정감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살풀이춤이 지닌 보편적 사유와 그로 인한 미감을 살펴본 후 한영숙 살풀이춤의 고유성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살풀이춤은 그 기원에 대해 무속의 의식춤 혹은 예능인들의 교방춤이라는 설이 있으며 무가에서 비롯된 살풀이가 시대를 거치며 교방에서 연행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정병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185호). 비록 굿판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기능을 가진 춤이라기보다는 무악(巫樂)인 살풀이 곡에 맞추어 추는 예술적인 춤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다(이유나, 2004). 복식 또한 시대별로 변화해왔으며 살풀이춤에서 정감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명주 수건은 대략 연행자의 키에 20cm를 더한 길이와 베들의 넓이를 그대로 살린 천을 사용한다. 반주는 시나위 곡의 기본적 장단으로 애조를 띤 가락에서 자존살풀이로 넘어가며 다시금 애조로 돌아오지만 그 안에 승화가 깃들여 끝을 맺는다.

맺힘과 풀림이 반복되는 상당히 간결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살풀이춤에는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과 투쟁 속에서 관계맺음을 만들어가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뿐더러 일면 난해하기까지 하다. 살풀이춤이 내포한 이질성의 공존에 대한 한성준의 ‘빛과 어둠을 함께 녹여낸 춤’이라는 설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춤에는 빛과 어둠이 번갈아 담겨있다. 빛을 향해 열려있는 춤, 어둠의 고통과 고뇌를 외면하지 않는 춤이 진짜 춤이다. 빛만 가지고는 춤을 완성시킬 수 없으며 어둠의 세계만 탐닉한다고 해서 올바른 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양의 조화와 조상들의 열과 숨결이 스며있을 때 비로소 우리 것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성기숙, 1999).

한성준은 살풀이춤을 상극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녹아있는 것으로 풀어냈다. 이러한 해석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살풀이춤을 동양의 기본철학인 음양(陰陽)의 조화와 연결시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김선영, 1995). 살풀이춤의 미감과 춤사위를 음양론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시도는 상당히 많이 누적되었으며 연구사를 풍부하게 하

는데 기여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를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보고 상극의 요소들이 맺고 있는 조화로운 관계들이 어떻게 춤 안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세계관은 객관과 자아-타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양철학의 이원론적 사고와는 달리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하며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일원론적 사고로 이해되었다. 한국 전통춤에 대한 연구들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서양과 동양의 세계관에 대한 이러한 피상적 비교는 근대 이후 서양이 우위를 점하며 재편된 정세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과연 자아와 타자, 인간과 자연의 미분리가 동양철학의 본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자연과의 합치라는 기초만으로 전통춤의 미감을 일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대립'의 존재가 전제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과 거리를 두고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자기'와 다른 '어떤 것'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다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중략)...대상화는 '자기'와 '남'을 가르는 인식의 전제이다. 여기서 대상화는 대립을 의미하고 헤겔적 변증법의 부정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부정은 무조건적·무제한적 부정이 아니라,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제한적', '조건적' 부정이어야 한다...(중략)...의식은 단순한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의식된 존재'를 뜻하고, 의식이 다시 규정되면 비로소 '자의식'에 도달한다. 즉 이중의 제한적 부정을 통해 자의식에 도달한다(박상환, 2005).

합일에 치중한 동양철학에 대한 일반론은 합일(合一)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분이(分二)의 과정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자칫 피상성을 띠는 관념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위 인용문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할 경우 인식의 주체인 인(人)과 대상인 천(天), 자연은 분리와 대립을 거쳐 합일로 나아가면서 모순적 관계를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합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주체와 객체의 대립 순간이라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 가운데 하나인 살풀이춤이 지닌 보편의 미감이 바로 여기에 있고 본다. 살(煞)을 표상하는 명주수건에 대한 부정과 수용, 맺음과 풀림을 구현하는 살풀이춤에는 분리와 대립의 과정을 거치며 객체와의 관계 속에서 객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주체 자신의 자아상이 재확립되어 가는 것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입과 절정, 결말 혹은 기승전결이라는 단계적인 변화 속에서 대립물로서의 '살'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일 이전에 존재하는 대립적 인식과 치열한 사유 속에서 새롭게 모색되는 삶의 살에 대한 틀을 파악하는 것은 살풀이춤이 지닌 고유한 의의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영숙류 살풀이가 지닌 고유한 색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살풀이춤의 미감을 바탕으로 하면서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이매방류와 한영숙류 살풀이춤에 대한 간략한 비교 고찰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합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통합의 복합적 인식구조가 살풀이춤의 독특한 미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매방과 한영숙은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에서 상이하다.

이매방이 정립한 살풀이춤은 모순적 관계 속에서 주체인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의 표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표현을 통한 소통이라는 예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대립을 통해 합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정감의 진솔한 표현을 통해 유려한 아름다움을 구현했다. 단일한 층위로 분석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결을 절묘하게 포착함으로써 애잔함과 쾌활함의 공존을 보여주며 진실한 인간의 면모를 과감 없이 전달한 것이다. 특히 섬세한 춤사위와 화려한 기교는 대립과 합일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정감의 표현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반해 한영숙의 살풀이춤은 대립과 합일의 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성찰을 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살(煞)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살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를 춤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다. 한영숙의 살풀이춤에 대해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의 구도자적 승고미가 깃들여 있다는 평가는 그의 춤이 지닌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살(煞)로 대변되는 세상을 향한 고뇌와 그것을 넘어선 조화로의 지향이 무아의 경지 속에서 치열하게 모색되는 가운데 펼쳐지는 한영숙의 살풀이춤은 그렇기 때문에 단엄한 분위기마저 자아낸다. 실제로 한영숙은 제자들에게 자기수양의 과정으로써 살풀이춤을 강조했으며 내적 충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유진, 2008). 절제된 춤사위를 통해 삶을 향한 치열한 사유를 구현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계를 되문개 하는 격조 높은 예술을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합일의 공존이라는 모순은 이매방과 한영숙의 살풀이춤의 본질적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남성인 이매방의 춤사위에 여성미가 깃든 것과 여성인 한영숙의 춤에서 강건한 남성성을 읽어낼 수 있다는 기존의 미학적 접근은 두 명무의 춤이 거시적인 틀에서는 결국 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Ⅲ. 살풀이춤의 미감 연구에 대한 반성적 성찰

앞서 한영숙의 살풀이춤에 내재된 사유의 틀을 살펴보았다. 삶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모순과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를 춤의 언어로 표현한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의미를 확인했다. 그런데 사유의 과정을 춤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감 또한 존재한다.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미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한영숙류 살풀이춤에 대해 엄격한 절제와 꾸밈이 적은 춤사위를 통해 단아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여성 연행자이면서도 남성적인 분위기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독해되었다.

본고는 한영숙류 살풀이춤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수용하면서도 ‘남성적 춤사위’와 ‘여성적 춤사위’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일상적 어휘로 사용되는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비 학술적인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학적, 인류학적, 문화적, 역사적 편차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물론 남성 연행자와 여성 연행자는 복색과 골격 구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외에 사회적으로 부여되고 요구된 역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의 또 다른 변별점에 대한 고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통춤을 분석하면서 남성적 춤사위, 여성적 춤사위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영숙류 살풀이춤이 지닌 긴장과 이완의 낙차를 통해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미감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풍부한 미감을 내재한 이매방류 살풀이춤을 언급하였으나 본고의 연구 대상이 한영숙류 살풀이춤이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한영숙류 살풀이춤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1. 젠더 개념으로 재검토한 살풀이춤의 미감

춤사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남성적 춤사위는 확산적, 상향적, 외향적인 것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여성적 춤사위는 섬세함, 유연함, 정갈함, 절제와 담백함 등을 묘사할 때 사용해왔다(윤하영, 2017). 한영숙의 살풀이춤에 대해 ‘여성적 단어함과 남성적인 강건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평은 춤의 이미지를 묘사하는데 그칠 뿐 그것을 학술적 요소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조건 속에서 구성된 차이에 대한 분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남성이라고 지칭되는 집단 내의 편차와 여성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남성과 여성을 고정적 주체로서 상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Beauvoir는 여성과 남성 간의 결정론적 시각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Beauvoir, 1949). 한편 기존의 많은 이론들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남성과 여성 간의 유사성에 주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Straayer는 권력과 억압이 남녀의 유사성을 외면한 채 차이를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성적 구분이 여성을 사회적 영역과 상징의 영역에서 배제시켜 온 원인이 되었음을 피력했다(Strayer, 1996). 생물학적 성(Sex) 개념 대신 사회조건을 고려한 젠더(Gender)가 대안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그렇다면 살풀이춤에 내재되어 있는 춤의 특성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남녀 무용수의 역할 구분이 엄격하게 설정되어있는 서양 고전발레와는 달리 한국 전통춤은 남성과 여성 연행자 간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대표적 전통춤인 승무, 살풀이춤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해 연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스승에게 수학하더라도 남성 연행자와 여성 연행자의 춤에는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게 된다. 한국 전통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편차에 대한 분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감에 대한 고찰이 이어져야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오히려 연구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한영숙류 살풀이춤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을 젠더적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남녀 연행자 간의 차이,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별의 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등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먼저 남성과 여성이 지닌 신체적 차이를 먼저 검토함으로써 젠더 개념을 적용하기 이전에 신체 조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소개하겠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는 개별 성 내부의 편차를 평균으로 수렴했을 경우 골격의 크기와 근육량에서 이질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살풀이춤에서의 수건놀음과 디딤새 춤사위 등에서 상이한 미감을 유발할 수 있다. 동일한 춤사위를 그대로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무용에서는 골격과 근육량의 차이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강건하고 힘찬 모든 춤이 남성적인 것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때방류 살풀이춤이 유려하고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한영숙류 살풀이춤이 단엄하고 남성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지닌 불합리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젠더가 살풀이춤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비록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해 연행 가능하지만 살풀이춤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한을 표현한다’는 살풀이춤의 미감은 본질적으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여성의 형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과 억압, 절제와 인고가 여성의 속성이라는 관념은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젠더로 구성된 여성의 특징이다. 여성에게 절제와 침묵을 요구하는 사회적 억압을 통해 구성된 내면이 살풀이춤의 동작에서 ‘여성적’으로 인식되는 동작과 연결되어 해석된 것이다. 한영숙의 경우 생물학적 성과 젠더로 이해되는 성의 일치 속에서 살풀이춤을 구현했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여성적’, ‘남성적’ 춤으로 독해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의 측면을 살펴야한다. 이는 그동안 통념적으로 제시되어온 이중적 구조의 해석과 구별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살풀이춤은 성의 구분 없이 연행 가능한 춤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젠더적 성을 오가면서 발생하는 미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수건놀음과 디딤새의 강건한 느낌과는 상반되는 살풀이춤의 춤사위는 여미는 동작이다. 남성 연행자의 경우 여미 동작의 느낌을 정확하게 살리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밈이라는 행위가 여성에게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내재된 속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적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춤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용어의 일반론을 넘어서서 살풀이춤과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긴장과 이완의 낙차를 통한 살풀이춤의 이해

위에서 살풀이춤의 미감에 대한 용어를 젠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기존에 통용되던 용어들의 개념을 포섭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본고는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용어 대신 긴장과 이완의 낙차라는 개념을 통해 살풀이춤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긴장과 이완의 조화로운 배치는 그 자체로 미감을 형성한다. 긴장(緊張)은 '줄이나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것처럼 움츠러든 상태'를 이완(弛緩)은 '당겼던 활시위를 놓은 것처럼 느슨하게 늦춘 것'으로서 서로를 반대급부로 인식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상보적 관계에 놓여있는 긴장과 이완의 원리는 인간의 호흡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훌륭한 예술작품들은 긴장과 이완을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몸을 통해 춤의 언어를 표현하는 무용은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이완의 조화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관객들은 비록 긴장과 이완의 정확한 패턴을 분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는 층위에서 자연스럽게 긴장과 이완을 표현하는 춤의 언어를 전달받음으로써 해당 작품의 미감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연행자는 긴장과 이완의 원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긴장과 이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어떻게 살풀이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은가? 긴장과 이완의 상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이완의 관계, 즉 이 둘의 편차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긴장과 이완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이완에서 긴장으로, 긴장에서 이완으로 이어지는 춤사위 속에서 발생하는 낙차의 크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낙차의 폭에 따라 동일한 살풀이춤을 추더라도 전혀 다른 미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긴장과 이완의 낙차가 크지 않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강한 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약한 이완을 보여주는 경우와 전반적으로 이완된 분위기 속에서 크지 않은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낙차가 작을 경우 그 폭 안에서 복잡다단한 춤사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 분위기가 섬세하고 유려함을 자아낸다. 이에 반해 큰 폭의 낙차로 구성된 춤은 그 무게감으로 인해 장중하고 엄격한 느낌을 전한다.

한영숙의 살풀이춤은 긴장과 이완의 낙차를 고려하였을 때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엄격한 절제와 꾸밈없는 춤사위, 단엄한 분위기 등은 그의 살풀이춤이 긴장과 이완의 언어를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영숙의 살풀이춤은 맺음과 풀림의 동작에서 편차를 크게 두어 강렬한 분위기와 몰입감을 자아낸다. 긴장과 이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한영숙의 살풀이춤을 구성하고 있는 긴장과 이완의 위치이다. 일반적으로 긴장-이완-긴장으로 이어지는 구성과는 달리 한영숙은 살풀이춤에서 긴장과 이완을 변칙적으로 사용하여 보는 이의 예상에 어긋나도록 구성하였다. 변주된 긴장과 이완의 원리는 그 자체로 새로운 긴장과 몰입을 유발함으로써 살풀이춤의 예술적 완성도에 기여했다.

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편차가 자아낸 미감은 폭이 클 경우 '남성적'으로 편차가 작을 경우 '여성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용어는 의미의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을뿐더러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긴장과 이완의 편차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3. 전승 과정에서 적층되는 살풀이춤의 미감

한영숙은 제자들에게 살풀이춤을 사사하면서 ‘넋을 표현하는 것’으로 살풀이춤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전했다. 인위적 기교를 최소화하고 내면을 반영하고자한 한영숙의 정신은 직계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원형을 보존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은주는 기교를 덜어내고 살풀이춤의 먹는 동작을 충실하게 구현함으로써 담백하고 엄중한 분위기를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거듭 지적한 것처럼 살풀이춤은 즉흥춤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개별 연행자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본질은 그만큼 다면적인 성질을 내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행자에 따라 살풀이춤의 미감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살풀이춤의 다양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본고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풀이춤이 지닌 생명력이 지속가능하다고 본다. 특정 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연행자의 심신에 따라 독자적인 색채를 지닐 수 있는 만큼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감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살풀이춤의 해체를 유발하기보다는 생명력에 기여할 수 있다. 유기체는 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고정되는 순간 현 시대와의 소통이나 호흡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살풀이춤은 그 춤을 향유하는 당대인들과의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전승 과정에서의 적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개인의 독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적층성은 살풀이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연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고정적인 살풀이춤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풀이춤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의 적층성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층 속에서 개방성과 폐쇄성의 길항작용은 살풀이춤의 미감은 물론 본질을 이끄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 살풀이춤의 미감에 대한 연구 또한 이 추동력을 바탕으로 형성·적층되어온 존재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IV. 살풀이춤의 발전적 계승과 과제

살풀이춤은 고유의 미감과 사유가 녹아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살풀이춤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후학 양성을 통한 물질적인 생명력과 이론의 풍부함을 통한 가치 고양의 필요가 있다. 비록 무보 작성 등 전통춤의 전승에 대한 교육학적 발전이 이어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지니는 한국 전통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후학양성과 전승은 살풀이춤을 보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물질적인 생명력 이외에도 살풀이춤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축이 바로 이론적 풍부함이다. 가치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창출되는 것이다. 고정적인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풀이춤이 형성되어온 과정에서 누적된 가치체계는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론적 분석 또한 뒤따라야한다. 살풀이춤을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해석한 선학들의 시도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동아시아가 공유한 중용(中庸)과 음양(陰陽), 천(天)·지(地)·인(人)에 대한 삼재사상 등은 한국 전통춤에 내재한 사유를 탐색하는 훌륭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지속되면서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물음과 답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 후학들의 과제라 하겠다.

현재 살풀이춤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살풀이춤에 대해 진행되어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의 통일한 상(像)을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의 가치를 통해 살풀이춤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전자는 살풀이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격상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표현 기법과 철학, 전승 양상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누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살풀이춤에 대한 입체적이고 선명한 상을 제시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온 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살풀이춤의 고유한 상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장르인 만큼 그의 역사성, 기법, 철학을 분석하여 '살풀이춤이란 무엇인가' 하는 상을 연구하는 것은 개별 연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성과를 산출할 것이다. 특히 세계 속의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내부에서의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살풀이춤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작업은 오늘날 전통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통춤으로서의 가치와는 별개로 현대인들에게 살풀이춤이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살풀이춤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전통과 고전이 그 자체로서 인정받고 해석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가치와 함께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인들과 살풀이춤의 조우를 돕는 것 또한 연구자들의 몫이다. 한국 전통문화는 그 자체로 강한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면서 다양한 향유층들을 포섭하며 생존해온 한국 전통무용은 이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전통과의 단절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주체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특히 살풀이춤은 고통과 고뇌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통문화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도 앞서 분리와 대립 속에서 다시 합일을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춤의 언어로 풀어낸 살풀이춤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살풀이춤의 진정한 의미는 그 결과가 합일로 귀결된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복잡다단한 성찰과 사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살풀이춤에 깃든 사유와 세계관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미결된 부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현대인들은 물론 동일한 문화적 자장아래 놓이지 않은 이들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살풀이춤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한영숙류 살풀이춤은 남녀 연행자들에게 전승되면서 상반된 미감의 춤사위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정재만은 살풀이춤에 대한 철학적 시도를 계속하며 의미를 창출해 후학들이 살풀이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은주 또한 살풀이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이은주는 한영숙류 살풀이춤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를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 스승으로부터 사사 받은 맥을 다음 세대로 이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살풀이춤은 특정 성별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연행자의 개별적인 미감과 살풀이춤이 지닌 보편 미감이 공존할 수 있는 장르인 만큼, 앞으로도 살풀이춤이 활발하게 전승되면서 그 안에 생물학적, 젠더적 성별의 차이를 다양하게 녹여낼 때 한국 전통춤 자체가 더욱 풍성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긴장과 이완의 편차는 이러한 용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시론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향후 용어의 정의와 엄밀성이 추가되어야 하며 계량적인 연구를 보조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후행되어야 한다. 젠더적 관점에서의 반성적 성찰과 대안 제시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연행자들의 참여 속에서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미되어 이론과 전승을 통해 한국 전통춤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한영숙류 살풀이춤을 중심으로 그에 내재된 철학적 사유의 일면과 표현적 미감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자연과의 합일과 조화를 지향하는 것에 집중했던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합일이 존재하기 위한 인식의 전제 조건인 분리의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을 포섭할 수 있는 보편성을 검토했다. 합일로의 귀결 자체가 아니라 합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제되는 분리와 대립, 그로 인한 고통의 존재에 주목하는 것은 살풀이춤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동양철학에 대한 일반론적 적용은 자칫 모든 전통문화가 자연에의 합일을 지향한다는 논리로 흐를 수 있다. 물론 동양의 사상이 상대적으로 전체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합일 이전에 분이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자연합일이라는 고정적 관점은 다면적인 해석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자연합일 이전에 존재하는 주체의 대립적 인식과 명주 수건으로 표상되는 '살'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안했다. 전통춤으로서의 살풀이춤에 대한 연구가 한국 혹은 동양의 고유성을 밝히는데 집중한 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었다.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고통과 해결의 의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틀은 살풀이춤에 내재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 살풀이춤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단계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맺음과 풀림, 대립과 조화의 변화 속에서 그 철학적 사유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살풀이춤의 미감을 남성적 혹은 여성적으로 지칭해온 관행을 젠더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성차별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실제로 그동안 남성적 춤사위, 여성적 춤사위 등의 용어가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정의 자체는 엄밀하게 학술적 용어가 아니며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개별적 성의 특성을 고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긴장과 이완의 낙차라는 개념을 도입해 살풀이춤 미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시론적 작업을 시도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완결성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작업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연구사가 풍부해질뿐더러 살풀이춤에 대한 이해와 발전적인 계승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살풀이춤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과제를 살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살풀이춤 연구의 성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상(像)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춤의 전승 과정에서도 유의미할뿐더러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살풀이춤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날의 가치로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한다. 특히 역사적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지니고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에 내재된 고통과 고뇌, 성찰의 과정은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의 보편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현대적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살풀이춤은 한국인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동시에 세계적인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통과의 단절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문화자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형의 보전과 발전적 계승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어떤 방향으로의 발전적 계승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참여적 고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지연(2005). 한영숙류와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미적 특성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5.
- 김선영(1995). 한국 춤에 내재된 태극사상의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48-72.
- 김연정(2016). 한성준 춤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89-92.
- 국승희, 강지연(2006). 한영숙류와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미적 특성 비교. 한국스포츠학회지. 4(1). 8.
- 권순주(2004). 정재만의 창작 작품에 내재된 전통적 성향 연구 :〈허튼 살풀이〉,〈광대의 꿈〉,〈비천무〉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7-24.
- 박상환(2005). 동·서 철학의 소통과 현대적 전환. 서울: 도서출판상. 232-233.
- 성기숙(1999). 한국 전통춤 연구. 서울: 현대미학사. 425-426.
- 성기숙(2004). 한국 근대무용가 연구. 서울: 민속원. 31-41.
- 윤하영(2017). 정재만류 승무에 내재된 미적 가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30.
- 이유나(2004). 살풀이춤과 무속 연관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55.
- 이유진(2008). 한영숙의 예술론과 살풀이춤의 삼재사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31.
- 정병호(1966).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20집. 서울: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615-750.
- 하수연(2003). 한영숙류와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춤사위 용어와 호흡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0.
- 황경숙(2005). 한영숙 살풀이춤의 미적 특징.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3(3). 400.
- Beauvoir. (1949). *Le Deuxième Sexe*. Paris: Gallimard.
- Straayer, C. (1996). *Deviant Eyes, Deviant Bod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BSTRACT

**Reconsideration on Salpuri Dance Studies:
Focused on the Sect of Han Young Suk**Han, Dong-Yub · Cho, Nam-Kyu *Sangmyung Univ.*

This study attempts critical introspection on the Oriental Thoughts of nature consolidate and esthetic sense of masculine·feminine which have been discussed to interpret the Salpuri dance for aiming to suggest a new perspective on future research on Salpuri dance. Salpuri dance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dances of Korea; it is actively carried on and meanwhile, it has drawn attention as a subject of research on traditional culture. As the preceding studies accumulates, it was an important achievement to try to understand Salpuri dance by the essence of Oriental philosophy aiming unity because of that it has become possible to grasp the reasons for their own existence. But the focus is on the unity itself, so that no discussion was made about the orientation and interaction of individual entities and the nature of the Salpuri dance was not fully captured on which express it's philosophical reasons in the language of dance. Also, it is problematic to use the concepts of 'masculine·feminine' without redefinition to interpret the esthetic sense of Salpuri dance. This paper noted the process of separation and confrontation which can be grasped by itself o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ere is an active side being establish the self image of subject not just recognition of objects in the relationship through the process of separation and confrontation on Salpuri dance which realize the denial and acceptance, the bond and the unraveling on the silk towel expressing one's misfortune. On this basis, This paper analyzed Han Young Suk's Salpuri dance as sublime beauty of seeker of truth by unraveling the process of philosophical introspection in the language of dance. On the other hand,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term 'masculine·feminine' through critic and proposed an alternative term: tension and relaxation gap. Salpuri dance has its own vitality, so that it is our task to present a unified image and reinterpret it through today's values.

Key words : Salpuri Dance, tradition, esthetic sense, tension, relaxation, gender

논문투고일: 2019. 08. 30
논문심사일: 2019. 10. 08
심사완료일: 2019. 10. 19